



# '전일빌딩245' 주말엔 시민 놀이터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 '공감'이 6일부터 전일빌딩245에서 펼쳐진다. 지역 교류음악회에 나서는 창원 솔리스트 앙상블 FIGO의 모습. <전일빌딩245사업단 제공>

광주 도심 한복판, 금남로의 전일빌딩245가 주말마다 시민들의 놀이터로 변신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북토크와 플라마켓이 이어지며 도심에 '작은 축제' 같은 토요일을 선물한다.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 'Connected spot(연결된 지점)-공감'이 오는 6일부터 하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9월의 주제는 '지구와 친구하기'. '자원 순환의 날'(9월 6일)에 맞춰 친환경과 재활용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프로그램은 한층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예고한다.

우선 주말 상설 프로그램들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이어진다. '액션! 아트놀이터'는 현장 사진전시 때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끈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달에는 재활용과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이 준비됐다. 6일은 '삼베방 비누 만들기',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이오나사 화분', '재활용 재료로 만드는 북바인딩'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고체 치약 만들기', '육수수거 카드 지갑 제작' 등을 할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창작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이터도 토요일마다 마련된다. '전일뽕뽕오락실'은 보드게임과 레트로 오락기, 에어바운스 같은 놀이기구로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AR게임투어-명탐정 전일'은 건물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수수께끼를 풀며 전일빌딩의 역사와 이야기를 배워가는 프로그램이다. 놀이와 학습이 어우러진 경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색다른 즐거움을 전한다.

광주의 기억을 따라 걷는 인문학 여행도 마련됐다. '소년의 길' 인문투어는 전일빌딩에서 출발해 시계탑, 상무관, 분수대, 옛 전남도청과 적십자병원, 금남로 일대를 지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향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운영되며 문학과 역사, 민주화의 흔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을 선사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공감'의 주말을 풍성하게 만든다. '전일스테이지'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소규모 공연이 이어진다. 극단 모이다의 환경 인형극(6일), 샌드아티스트 정민아와 동화 구연가 김미영이 함께 꾸미는 모래와 이야기의 무대(13일), 드럼과 페인트통을 활용한 팀 '드럼 온 체인지'의 강렬한 리듬(20일)까지 매주 다른 색깔로

## 11월까지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

- 이번달 친환경·재활용 주제
- 비누·고체 치약 만들기 등 창작 보드게임·레트로 오락기 놀이기구
- 인형극·동화 구연·드럼 공연
- 광주-창원 지역 교류음악회 등 풍성



북토크를 진행하는 성해나 작가.



재활용 유리 키링 만들기 모습.

시민들을 만나다.

특히 27일에는 '지역 교류음악회-우리'가 펼쳐진다. 버려진 장난감을 악기로 재탄생시킨 광주의 '플라스틱 코르셋'과 창원의 '솔리스트 앙상블 FIGO'가 함께 무대에 올라 업사이클링과 클래식 의 이색 협연을 펼친다. 음악을 통해 지구와 친구하는 법을 전하는 무대다.

올해 상반기 광주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도 돌아왔다. 한국 문학의 젊은 작가들이 직접 독자와 만나는 시간이다. 6일 오후 1시에는 '우리의 사람들', '그림 무얼 부르지'의 박솔미, 20일에는 '내 꿈에 가끔만 놀려라'의 고선경, 27일에는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은 박상영 작가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글쓰기와 영감의 세계를 나누는 대화의 장은 문학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시간이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결을 더하는 전시와 강연도 이어진다. '전일245클래스'는 재활용 천으로 전통 액막이 인형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전일245'에서는 알긴산나트륨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김민경 작가의 설치작업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를 선보인다. 또 13일에는 친환경 모빌 만들기 워크숍도 진행된다.

플라마켓 '덕질상점-쓸모를 찾는 토요일'은 자원 순환의 의미를 살린다. 중고 물품과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판매하는 '쓸모마켓', 다 읽은 책을 교환하는 '바꿔읽장', 세척한 우유팩을 가져오면 재활용 노트로 바꿔주는 '순환부스'가 대표적이다. 지난 행사 포스터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노트와 파우치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과 체험, 북토크와 전시 등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세부 운영 시간과 참가 신청 방법은 전일마당 누리집,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우정 전일빌딩245사업단 사무국장은 "매주 토요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전일빌딩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고 가까운 공간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죽형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혼 되새기다

기념사업회, 6일 26주기 축전...시상식·공연·시낭송 등 다채



지난해 열린 죽형조태일문학축전 장면.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제공>

죽형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혼을 추모하고 시정신을 되새기는 문학 축전이 열린다.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는 고인의 26주기를 맞아 오는 6일 오후 3시 곡성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축전을 펼친다.

'저 깊고 푸른 고요를 일깨우고'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시상식, 공연, 시낭송, 추모 시화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다.

먼저 제7회 조태일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제주 4·3의 역사와 상흔 치유를 위한 시 쓰기를 계속해 온 김수열 시인에게 상이 주어진다. 상금 2000만원과 조태일 시인의 초상과 대표 시 '국토서시'를 새긴 고(故) 정병래 조각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이어 기념사업회는 효봉 여태명 서예가가 쓴 '국토서시'를 문학기념관에 전달하고, 상시 전시할 예정이다.

여 서예가는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화와 번영을 심다' 표지석 취호를 써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 전용기 휘호, 고창 선운사, 문화체육관광부 현판 글씨, KBS '1박2일', YTN '돌발영상' 타이틀 등을 쓴 바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민중의 서체인 '민체'를 연구했으며 먹과 붓으로 글씨와 그림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 낭송 등 다양한 공연도 예정돼 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연출가인 류의남 가수는 조태일의 시 노래 '그래도 봄은 오는가'를 비롯해 '어떤 인연', '세월이 갈수록' 등을 들려준다. 중요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인 소리꾼 김동준과 제20회 대한민국빛고을기악대제전 가야금병창 신인부 대상을 받은 바 있는 소리꾼 남선아의 '춘향가' 등 국악 무대도 마련된다.

음악동아리 '섬진강아름다운사람들' 리더로 활동하며, 매년 미실란 음악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 섬진강 마을영화제 등 곡성 지역의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서용호 연주자는 '하얀 나비', '향수' 등을 하모니카로 들려준다.

송태웅, 전숙경, 김경애, 서수경 시인의 시 낭송 무대도 펼쳐지며 전국에서 50여 명의 시인이 참여하는 '조태일 시인 26주기 추모 시화전'은 시 읽기의 묘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사업회 황형철 사무국장은 "죽형 조태일 시인은 군부 독재 시절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시인"이라며 "곡성군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문학축전이 고인의 시정신을 기리고 시문학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참석자 편의를 위해 축전 당일 오후 1시 15분 ACC 부설주차장에서 전세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다. 문의 전화 광주전남작가회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누리카드 잔액 알뜰하게 쓰세요

전남문화재단, 18일까지 소진 이벤트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6세 이상 대상자에게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며, 공연·전시·영화 같은 문화예술은 물론 국내여행과 체육 활동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말이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기에 기한 내 사용이 중요하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잔액소진 이벤트'

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자동 소멸되는 것을 막고,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벤트 기간 내 문화누리카드로 첫 결제를 하거나, 잔액을 모두 사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영수증은 네이버 폼과 이메일, 문자·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GS25 모바일 상품권(5000원권) 또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